

월요광장

부모가 아이 편 되어주면 공부도 더 잘됩니다



김경란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기(長期)기역을 만들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체가 손상됩니다. 결국, 아이가 불안...

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에 대해 더 많이 궁금할 테지만 말입니다. 자녀 역시 “말을 해도 부모님과는 의사 소통이 되지 않는다”며 불평합니다. 아이가 부모와 대화할 때 부모는 항상 자기편이라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아이 자신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부모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게 해야 아이는 부모에게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조칼럼

판사의 눈, 기자의 눈



한지형 광주지방법원 판사·공보관

“과결론 나왔나요?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요!”, “오늘 법정에서 XX일이 있었다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지난 1년간 공보(公報) 업무를 담당하면서 출입기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공보’란 사전적으로는 “국가 기관에서 국민에게 각종 활동 사항에 대하여 널리 알릴”을 뜻한다.

도로 개리는 판사들과 기사거리가 될 만한 사안에 눈을 반짝이는 기자들 사이에서 지난 1년, 답을 얻었는지 되돌아본다.

판사가 원고와 피고,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통해 사건을 접하고 증거에 비추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한 다음 판결로 그 결론을 설명한다면, 기자는 취재원의 제보를 통해 사건을 접하고 이런 저런 확인을 거쳐 그 제보가 사실인지 판단한 다음 기사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니 그 과정이 사뭇 비슷하다. 진실과 거짓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속자 말아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더욱 그러하다. 판사와 기자 모두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니 적어도 같은 사건에서는 판사의 눈과 기자의 눈이 같을 법도 한데 왜 어떤 판결은...

옴부즈맨 칼럼

소통을 위한 언론의 노력



김운하 전남대병원 진료처장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장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자신의 한계와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탓대로 되지 않을 터, 부족한 면을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부문에서 김연아 선수는 아주 훌륭한 연기에도 금메달을 놓쳤다. 국민은 아쉬워하고 세계 유력 언론에서도 실질적인 여왕이라고 극찬을 했으며 갈라쇼에서 우아하고 완벽하 무대 주인공이 돼 선수 생활을 마쳤다. 시상식에서 보여준 유연한 모습을 통해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큰 그릇임을 보여 주었다.

어떤 대상의 가치를 규명하는 평가는 냉정하다.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하면 삶이 얼마나 고단해지겠는가? 박수 칠 때 떠나라 했다. 최선을 다했고 많은 이들이 그 뜻을 알아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지난 주말에 전남대 병원 간호 모임이 진도에서 있었다. 그간의 업무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을 도모하려는 기회를 가지려는 것이다. 세미나 장소로 가는 길목에 ‘운림산방(雲林山房)’에 들렀다. 몇 년 전 가족과 가 본적이 있어 별 흥미는 없었지만 유명한 관광안내자의 친절한 안내가 색다른 재미를 더 했다. 소치 하런 선생의 영정이 모셔진 운림사에는 그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대표적인 작품 ‘세한도(歲寒圖)’ 복판이 걸려있었다. 그가 59세 때인 1844년, 제주도 유배 당시 지위와 권력을 잃어버렸는데도 사제간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을 찾아온 제자(역관 이상적)의 인품을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유하여 그려준 것이다. 그가 중국에서 어렵게 책을 구해 보내오자 자신을 대하는 한결같은 제자의 마음에 고마워하며 보낸 글과 그림이라 한다. 허름한 집 한 채에 피꾸라진 노송은 자...

문화누리카드 선착순 발급 문제많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아침 일찍 주민센터로 향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 가족,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등을 받는 자들에게 세대당 10만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소식이 발급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길을 나섰다. 주민센터 앞은 이미 기다란 줄이 만들어져 있었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복잡해 나이 든 어르신들에겐 고역이었다. 결국 늦게 온 주민들은 ‘발급 완료’라는 말에 허무하게 발급음을 돌려야했다. 애초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발급방식이 문제라고 본다. 배경진 카드가 소진되면 더 이상 발급할 수 없다는데, 선착순이라는 지급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했는데도 계속 놀리는 거야” 라는 식으로 친구와 다툼 속내를 털어놓게 됩니다. 아이의 말에 공감하면서 대화를 하면 아이는 부모가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 속에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모두 토해낼 수 있습니다. 친구와 다투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가 정말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효과적인 훈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 합니다. 친구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 기준에 맞춰 아이를 가르치려고만 하면 거리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더욱 알 수 없게 되겠지요! 아이가 학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이유는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 때문 입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혹은 시라도 비뚤어지게 될까봐 염려돼 아이 편에서 맞장구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기 불만을 터뜨릴 때 귀 기울여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는 그 다음에도 부모에게 자신의 불만을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쏟아낼 것입니다. 결국 아이가 원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것”이고 가장 편하게 불편한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대상이 부모라면 가장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소년기는 제지할수록 불만이 커지고 반항심이 생기게 되는 시기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게 되면 아이는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 기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라면 공부를 잘하기 어렵겠지요. 정서적으로 소외하기 어려운 경험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해 뇌의 일부분이 파괴되는 까닭입니다. 이와 달리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기억이 많은 아이는 공부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성격 향상을 바라신다면 이제부터는 부모님들께서 아이와 좋은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社說

신당 창당 성공의 길, 민심에 답이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의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지방선거 전 ‘제3차대 신당’을 창당하기로 전격 선언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측이 이른 시일 내에 새 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 추진하고, 이를 통해 2017 정권 교체를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또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3차대 신당 창당은 양측의 5대5 지분 참여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3자구도에서 양자구도로 치러질게 되며 차기 대권을 놓고 친노, 비노, 친안 간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신당 창당 선언은 그동안 호남이 양측에 보낸 메시지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야권 연대 없이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당선이 확실시되는 서울, 인천, 강원, 충남 등지의

시창·지사를 새누리당에 내줄 수 있고, 야권 분열로 차기 총선과 대선에도 악영향이 우려돼 야권 연대 내지 통합을 바랐던 계 호남의 민심이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야권 연대를 거부한 데다 인물난에 로드맵도 불확실해져 올 초부터 내리막길을 거듭해왔다. 새정치연합의 변신은 위기 상황에 대한 돌파구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호남과 인식을 같이했다는 데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당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계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정치공학적 합력’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며, 지방선거의 불을 만드는 것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무공천에 따른 기초선거 과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양측은 신당 창당까지 속한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먼저 계파를 허물고, 기득권을 내려 놓는 등 뼈를 깎는 쇠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 게 바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길이다.

공무원들 선거관 복지부동·출서기 안 돼

지방선거의 해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출서기다. 민선 자치단체장의 임기 말에 나타나는 레임덕(lame duck) 현상의 하나다.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 집행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눈치보기와 편가르기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6·4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해도 광주·전남 상당수 자치단체에서는 선거 준비에 밀려 지역의 미래를 열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 발굴은 찾아보기 어렵고, 민생과 직결된 각종 현안사업 해결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연말 개통하는 KTX 호남선 정차역 광주역 권유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빛고를문학관 건립, 아시아아트컬처파크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들에 대해 시민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전남도 역시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역 지사가 출마하지 않고 종진 국회의원 등 유력 주자들이 세블리기에 나서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학연·지연에 따라 출서기와 평가프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지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일부 시·군에서도 차기 권력을 향한 눈도장 짝이에 급급해 공무는 뒷전인 경우가 많다. 고위직 공직자들이 잇따라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로 인한 행정 공백도 우려된다. 현역 단체장이 추진해오던 시책과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 단체장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민선 마지막 1년이 ‘버려지는 해’가 돼서는 안 된다. 행정의 연속성을 해치고 지역발전을 정체시킬 수 없다. 선거 직전이나 직후 자기 사업을 요직에 승진시키는 단체장의 출세주기 인사관행도 근절돼야 한다. 특히 공무원예연 선거에서 철저히 중립을 지켜 흔타치를 막고 공평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복(公僕)의식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無 等 鼓

평생 499권의 책을 저술한 다산 정약응의 다작 비결은 다독에 있었다. 그는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뜻을 세워 학문과 독서에 힘쓰는 일, 격돌과 궁리에서부터 책을 모으고 보관하며 베껴거나 기록하는 일, 책을 아교고 즐기는 일은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가(家)’의 근본에 놓여야 한다”며 독서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다. 정약응은 ‘제가(齊家)’, ‘치가(治家), ‘보가(保家)’와 함께 ‘기가(起家)’를 집안을 다스리는 네 가지 근본이라며 이를 책상 위에 놓아두고 항상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역사 속 위인들은 상당수가 독서관이였다. ‘홍길동전’의 허균은 기꺼이 만 권 서책을 종팔레이기를 원했던 책벌레였다. 서재 이름을 책벌레들이 도연명·이태백·소동파와 친구를 맺고 싶다는 뜻에서 ‘사우재(四友齋)’로 정했고, 혼자만 많은 책을 탐하지 않고 도서관처럼 만들어 지인들과 나눴다. 시인 윤동주는 매일 새벽 2~3시까지 책을 읽었다. 중대 학생 시절 시인 백석이 100부 한정판으로 낸 ‘사슴’이란 시집을 구하지 못하자 도서관에서 하루종일 그 시집을 베껴

필사본을 만들어 가졌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전쟁터 말 위에서 책을 읽었다는 일화를 남겼다. 전쟁터에서 책을 읽는 습관은 이동도시민의 원초가 됐는데 그가 52년 평생동안 읽은 책은 8천여 권에 달했다. 이집트 상형문자의 열쇠가 담긴 로제타석을 발굴하고 나폴레옹법전을 만든 것도 독서를 바탕으로 한 뛰어난 학식과 교양 덕이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은 책읽기였다”고 술회했다. 철학·경제·정치학 등 고전독서를 통해 훗날 격조 높은 문장과 연설문을 남겨 정치

오거서(五車書)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